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 안국선의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을 중심으로

이정옥*

1. 문제제기
2. 「연설법방」에 나타난 연설교육과 계몽교육
3. 「금수회의록」에 나타난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 효과
4. 결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개화기의 연설 형식으로 구성된 소설을 공공영역에서 전개되었던 의사소통적 양상이 문학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시각에서 개화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연설교육에 주목하여,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을 중심으로 계몽 이념의 전달력과 독자들의 감화력을 높이기 위한 안국선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설법방」에는 이상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설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 안국선이 연설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당대에 일본 연설교육의 중심지였던 게이오의숙에서 유학 하였던 경험에 힘입은 바 크다. 안국선은 연설교육을 통해 근대적 문물과 계몽 담론을 익힘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풍속을 개량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변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금수회의록」은 동물이 인간을 성토하는 연설회의 형식인 우화소설과 액자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소설이 결합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방식은 독자들이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수치감과 인간다운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각성하도록 만들고, 이로써 독자를 설득과 계몽의 효험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로 말미암아 「연설법방」에 실린 연설문과 「금수회의록」의 연설문의 내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비판 수위가 훨씬 더 높게 느껴진다. 그런데 동물들이 인간을 비판하고 회개를 유도하는 토대는 기독교적 사상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즉자적으로 근대적 문명개화와 동일하게 등치하는 한계를 보였다.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개화기 소설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온전하게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연설이나 토론 등을 매개로 전개된 개화기 지식인들의 지적 지형도를 밝혀냄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연설교육, 계몽 효과, 의사소통, 공공영역, 연설의 서사화, 액자소설, 우화소설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개화기 초기¹⁾ ‘토론체 소설’에 관한 기존 논의들이 근대 소설의 기원과 관련하여 문학적 양식의 형성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실행되었던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토론이나 연설과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1900년대의 토론체 소설을 연설회나 토론회 등의 형식을 글쓰기 차원으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으로서

1) 이는 19세기 말에서 1910년 이전까지의 시기로, 개화기 초기, 애국계몽기, 근대 계몽기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개화기’로 통일한다.

공공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의사소통적 양상이 문학적으로 전환된 새로운 담화 장르²⁾로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개화기 지식인들의 소설에 대한 관심이 미학적 속성이나 양식적 특성보다는, 소설이 독자들에게 주는 감화력을 이용하여 계몽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여겼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화기 지식인들은 19세기 후반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동안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신문을 발행하였고, 만민공동회나 협성회 등의 토론회를 중심으로 토론과 연설을 활성화시켜 계몽 기획을 확대·재생산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였다. 개화기 지식인들이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의사소통망을 통하여 계몽 기획을 펼친 주된 의도는 광범위한 독자 대중들을 새로운 가치 체계 속으로 동화시킴으로써 공통된 가치관을 지닌 동질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근대 출판문화를 통한 근대 지식인들의 ‘전체 사회를 향해 말하기’의 방식은 논평적 담화 장르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³⁾

물론 이러한 논평적 담화 장르는 고려시대부터 발달했던 논변류 산문이 고소설로 정착되었던 문학적 전통과 조선시대 국왕과 연관을 주축으로 공론이 형성되었던 공론 논변의 전통이 개화기에 이르러 결합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⁴⁾ 그러나 개화기 초기에 발달했던 논평적 담화 장르

2) 이는, 언어 사용이 인간 활동의 여러 영역에 관계하는 참여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발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고 주장하는 바흐친이 제시한 용어이다. 즉 발화의 형식은 주제적 내용, 문체, 구성 조직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며, 주어진 소통 영역의 특성에 의해 안정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349-358쪽.

3) 여건중, 「공공영역의 수사학 :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소설의 발생」, 『안과 밖』2호, 영미문학연구회 편, 1997. 10쪽.

4) 이에 대해서는 이강엽의 『토의문학의 전통과 우리소설』, 태학사, 1997과 엄훈의 『조선 전기 논변 연구』, 역락, 2005를 참조할 것.

의 특징은 지식층이나 관료, 또는 예비 관료 집단인 유생들끼리 공유했던 논변류의 산문이나 조선의 공론 논변과 다르게, 만민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근대적 매체를 매개로 하거나 또는 직접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사회를 향해 말하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변별성을 지닌다. 개화기 초기에 등장한 연설과 토론 중심의 논평적 담화 장르는 당대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두적인 지식인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당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근거하여 새로운 동질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계몽 기획에 부합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담화 장르는 당대 사회를 포괄적으로 재현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행위를 통해 그 사회를 특정한 모습으로 변화하려는 계몽 기획의 수사적 실천에 해당한다.⁵⁾

근대 지식인들이 추구하였던 계몽 기획은 크게 세 개의 층위, 즉 의회 설립이나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계몽의 층위,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통 교육의 이념을 내세운 계몽교육의 층위, 풍속이나 여항으로 지칭되었던 사적 영역을 개량하는 풍속 교화의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⁶⁾ 이에 따르면, 개화기 지식인들이 신문 논설이나 소설을 통해, 또는 토론회나 연설회를 개설하여 일반 대중들의 의식을 각성하고자 했던 일련의 계몽 활동은 사회 구성원 전체를 향해 계몽 이념을 보다 멀리 그리고 깊은 곳까지 전달하여 풍속을 개량하고자 했던 계몽 기획으로서 내적 긴밀성을 지닌다. 즉 계몽 이념을 전달하였던 개화기의 신문 논설이나 소설 등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계몽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문어적 수단이었고,⁷⁾ 공공영역에서

5) 여건중, 앞의 글, 10-11쪽.

6) 김동식, 『한국 근대문학의 풍경들』, 들린아침, 2005. 150쪽.

7)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208-213쪽.

실행되었던 토론이나 연설은 계몽의 가장 효과적인 구어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토론이나 연설이 반드시 구술적 상황에서만 전개되었던 것이 아니라 신문 논설에서도 토론식 구성 방식을 빈번하게 활용하였고, 이것이 개화기 특유의 토론체 소설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개화기에는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토론과 같은 이성적 담론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적인 능력을 갖춘 시민 계급으로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공론을 펼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엘리트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지식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던 일반 국민들이 선각적 지식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을 벌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토론보다 지식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향해 계몽 이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연설이 더 활성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메이지시대 초기 일본에 연설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학식이 높은 학자들이 식견이 낮은 사람들을 계몽하고 고상하게 만들기 위해 연설교육에 힘써야함을 강조하였던 것⁸⁾이나, 개화기 문학에서 토론이 극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현실에서 실행되었던 토론은 토론의 틀을 걸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방적인 교화 즉 연설의 수준에 머물렀던 점⁹⁾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맥락에서 신문이나 잡지, 각종 연설회 등의 공공영역에서 직접 연설을 통한 계몽 교육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연설교육서인 「연설법방」을 발간하고 「연설법방」의 속편 또는 통속화¹⁰⁾라는 평가를 받는 「금수회의록」을 발표하는 등 연설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안국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설법방」은 연설을 통해 근대 국가 형성에 기반이

8) 후쿠자와 유키치, 남상역 외 역, 『학문의 권장』, 소화, 2003. 151-155쪽.

9) 이강엽, 앞의 책, 277쪽.

10)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양식 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201쪽.

되는 국민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했던 개화기 지식인들의 계몽 기획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설을 배우는 데 필요한 교육 내용은 물론 구체적인 연설 사례가 실려 있어서 개화기에 실행됐던 연설의 양상과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토론체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금수회의록」은 연설 형식과 우화 형식의 조화를 통하여 연설의 효용성을 고취하고 독자들의 감화력을 추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을 중심으로 안국선이 지향했던 연설교육의 내용과 계몽교육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안국선이 연설교육에 치중했던 점을 고려하여 연설교육의 효용성을 고취하고 독자들의 감화력을 높이고자 했던 「금수회의록」의 서사전략과 그 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개화기 지식인들이 계몽 기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근대적인 출판 환경에 새롭게 노출된 독자 대중을 대상으로 계몽 이념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활용되었던 소설의 공리적 효용성을 규명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2. 「연설법방」에 나타난 연설교육과 계몽교육

안국선이 개화기 지식인들 중 연설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관비 유학생으로 뽑혀 일본의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수학(1895년 8월부터 1896년 7월까지 보통학과에서 1년간 교육을 받았음¹¹⁾)했던 경력과 관련이 있다. 게이오의숙은 창설자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메이지 8년(1875) 교내에 미타(三田)연설관을 개관한 이후, 일본

11) 최기영,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상)」, 『한국학보』63호, 1991. 129쪽.

근대 연설교육의 중심으로 부상하였다.¹²⁾

안국선은 게이오의숙에서 1년간 수학한 이후 동경전문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귀국 후 한말의 부패한 정치현실을 개혁하고자 정치운동에 뛰어들었다. 또한 그는 민족정신의 계몽과 진작에 앞장서 해산된 독립협회의 간부들과 함께 「대합협회」와 「기호흥학회」 등 애국 계몽 단체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정치, 경제, 법률, 역사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글을 발표하였고, 연설 활동과 저서 활동을 전개하였다.¹³⁾

이와 같이 안국선이 저술활동 뿐만 아니라 연설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국민들의 식견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당대 개화기 지식인들이 “공부하지 않는 백성들이 적어지도록 힘을 써야 문명국이 된다”¹⁴⁾고 주장했던 바와 같이 안국선 역시 ‘국력의 강약이 국민들의 지식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정부에서 군주의 권력이 의존하는 정말 강한 힘은 사회의 여론이 이것ियो, 또 그 여론은 근대 우리들이 민주정체에 관하여 일컫는 이른바 여론과 그 뜻이 동일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 보면, 당시의 법률은 일반 백성의 의사 가운데에서 생기나는 것이요, 또 군주 권력의 기본 되는 것은 곧 이 법률이다. 그러하니 곧 군주는 일반 백성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행하므로 예로부터의 습관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일반 백성의 의사 가운데에 숨겨진 세력은 한편으로는 군주의 권력을 편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다.¹⁵⁾

12) 柳澤浩哉 외, 『レトリック探究法』, 朝創書店, 2004. 140-148쪽.

13) 권영민, 「안국선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 『한국 민족문화론 연구』, 민음사, 1988. 78-79쪽.

14) 「론설」, 『협성회회보』, 1898.1.1.

안국선은 특히 근대 서양 정치사상을 수용하여 새로운 근대국가를 건설하자는 이상론을 제기했고, 이상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의 동의에 의거해 움직일 때만 올바른 정치가 행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가의 권력은 ‘정부의 권력’에서 나오고 정부의 ‘조직된 강력한 힘’은 주권자의 의사를 강행하기 위해 성립된 것으로서, ‘국민 다수의 일치한 의사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그의 이런 주장은 근대 일본의 지식인이자 게이오의숙의 창설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과 흡사하다. 서양 사정에 밝았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봉건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 입헌군주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연설과 토론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를 떠받치는 불가결한 요소임을 역설하였다. 그는 이런 사상을 토대로 왕성한 저작활동과 연설활동을 펼쳤고, 아울러 연설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875년 게이오의숙 교내에 미타(三田)연설회를 개최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연설과 토론을 벌이는 교육장을 제공하였던 것이다.¹⁶⁾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1896년 서재필이나 윤치호 등의 개화기 지식인들이 협성회를 결성, 매주 토요일마다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자주독립과 문명부강’이라는 계몽 이념을 확산하기 위해 연설과 토론교육에 치중했던 것¹⁷⁾ 역시, 게이오의숙의 연설과 토론교육 방식과 매우 흡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5) 안국선, 「정부의 성질(속)」, 『대합협회회보』, 1909. 2. 3, 안국선 편, 『금수회의록(외)』, 범우, 2004. 395쪽.

16) 차배근, 『개화기 일본 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107-109쪽.

17) 전영우, 『한국 근대토론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91. 92-101쪽.

비지학당 학도들이 학원 중에서 협성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모아 의회원 규칙을 공부하고 각색문제를 내어 학원들이 연설공부를 한다니 우리는 듯기에 넘으 즐겁고 이 사람들이 의회원규칙과 연설하는 학문을 공부해야 조선 후생들에게 선생들이 되어 만스를 규칙이 있게 의론하며 중의를 좇아 일을 거처하는 학문들은 퍼지게하기를 바라노라.¹⁸⁾

애초 배재학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공부’와 회의법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던 협성회는, 일반 회원들에게도 연설 기회를 주어 점차 일반인들의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설과 토론을 벌이는 단체로 발전하였다. 또한 협성회를 중심으로 종로나 광화문 등지에서 가두연설이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이 높아져 연설회로 발전하였다¹⁹⁾는 기록으로 보아, 개화기의 지식인들이 연설을 계몽의 방편으로 널리 선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설은 화자가 일방적으로 청중을 향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신념을 진술하는 대중 화법으로서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동체적 집단 의식을 각성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효율성이 높기에,²⁰⁾ 개화기 지식인들은 연설을 계몽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개화기 초기의 연설은 계몽을 주도하였던 집단과 계몽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집합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적 말하기 양식이면서, 동시에 계몽 이념을 여론화하고 확산을 담당하는 담화 장르로 활용되었다.

오래된 낡은 나라가 제도를 버리고 새롭게 함은 마땅히 피하여 언

18) 『독립신문』, 1896.12.1. 「잡보」

19) 전영우, 앞의 책, 102-103쪽.

20) 이창덕 외, 『삶과 화법』, 박이정, 2004. 291-322쪽.

어야 하지만 백성이 어리석고, 문명은 모름지기 일으켜야 하지만 사회가 어리석어 사리(事理)에 어두우니, 먼저 깨달은 사람의 마땅히 깨우치는 말은 어쩔 수 없으며, 뒤따라오는 자 또한 토론이 한가할 수 없다. - 중략 - 언론이 떨치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가 일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권력이 또한 따라서 떨치지 못해 현정의 아름다움을 꾸며내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나는 언론사회의 떨치지 못함을 근심해 이 책을 지어 인쇄하고 세상에 내놓으니²¹⁾

위의 인용문은 안국선이 「연설법방」에 붙인 머리말이다. 안국은 당대 사회를 ‘변론의 중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 규정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언론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만한 지식과 훈련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 언론이 활성화되지 못한 당대 사회 상황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잠자는 자를 깨우기’ 위해 「연설법방」를 출간했던 안국선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다. 아울러 「연설법방」이 출간 1년 만에 3판을 찍을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연설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던 당대 사회적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가)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고, 정치가 있는 이상은 응변이 반드시 요구되고, 응변가가 되고자 한다면, 깊이 마음을 쏟음과 보고 들은 것이 많아서 많이 얹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²²⁾

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날 이와 같은 형편에 이를수록 더욱

21) 안국선, 『금수회의록 (외)』, 108쪽.

22) 안국선, 『금수회의록 (외)』, 117쪽.

떨쳐 일어나고, 더욱 떨쳐 일으켜 각 사회의 각 방면이 함께 나아감만 있고 물러남은 없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²³⁾

다) 이와 같이 여러분을 향하여 학문하라고 타일러 권할 때에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힘쓸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는 성품을 기를 일이니, 여러분은 참는 성품을 기르십시오. -중략- 두 번째는 용감한 기운을 일으킬 일이니,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을 일으키십시오. -중략- 세 번째는 부지런히 힘쓰는 마음을 일으킬 일이니, 여러분은 무슨 일에든지 부지런히 힘쓰십시오.²⁴⁾

안국선은 가)의 ‘학술강습회 연설’에서 청년들의 지식을 개발하고 사회문명과 풍습을 개진하고 애국심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 ‘낙심을 계하는 연설’인 나)에서는 외세 침략의 위기를 직면하여 극복하는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낙심을 경계하고 일치단결의 힘과 새로운 기상을 고취해야 한다고 격려하고 있다. 다)의 ‘학교의 학도를 권면하는 연설’에서는 ‘젊은 청년 학도야말로 독립을 회복할 영웅들로서 사회문명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학문을 연마하고 더불어 성품과 용감한 기상과 근면을 길러 국민의 의무를 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는 연설’에서는 국가의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국민의 행복을 해치고 문명개화를 이룩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 관리들을 통박하고, ‘부인회에서 하는 연설’에서는 여성을 억압하는 인습을 여성 스스로 타파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동에 대한 연설’과 ‘단연연설’

23) 위의 책, 144쪽.

24) 위의 책, 157-158쪽.

에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금연을 실행하여 사회 풍속을 개량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어떤 사람이든지 연설을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은 인정(人情)의 상태다. 누구나 맨 처음부터 잘하기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연습하는 공부를 쌓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연습하는 방법은 하나하나 들어서 말할 겨를이 없으나 우선 가장 긴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여 항상 변론하되 어려워하지 말고, 앞일을 헤아리지 말고, 굽히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더라도 돌아보지 말며,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 해도 돌아보지 말며, 힘이 다해도 게을리 하지 말며, 날이 저물어도 고달파하지 말며, 밥을 대하더라도 그 변론을 마친 뒤에 먹고, 일이 있더라도 그 언론이 그친 뒤에 행하여 쓸데없는 언론이라도 늘 변론을 해야 할 것이다.²⁵⁾

연설교육에 임하는 안국선은 마치 연설에 막 입문하는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을 향하여 연설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며, 연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몸에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연설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남들이 비웃더라도 겁을 먹거나 움츠러 들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하며, ‘연습하고 또 연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설법방」은 연설에 대한 이론 부분과 연설문의 사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부분에서는 연설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방법, 감정을 표현하는 법, 연설을 마치는 법 등을 제시하고, 서구의 유명한 연설문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과 학생은 물론 부인과

25) 안국선, 『금수회의록 (외)』, 145-148쪽.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문의 사례를 들고 있다.

아! 여러분이여! 인류로 세상에 태어나거든 배우지 못할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지식이 없는 결과는 본인과 같이 부끄러워서 붉어진 얼굴이 이와 같습니다. 학문이 없는 결과는 본인과 같이 부끄러워서 붉어진 얼굴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떨쳐 일어남으로 몇 마디 말을 삼가 늘어놓아 여러분의 맑은 귀를 더럽히고자 하오니 용서하십시오.(삼가 듣고, 삼가 듣다) - 중략 - 또 계의 손발에는 지금도 털이 많으니 이것은 그에 움켜 빼앗은 원숭이의 털이라 합디다. (웃음소리가 또 일어나다.) 여럿이 같이함을 깨고, 이로움을 혼자 차지하려는 사람은 이 원숭이와 같이 맨 뒤의 승리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몸에 상처를 입게 되니, 청년 여러분이여! 여러분은 사회의 이로움을 위하여 힘을 다 하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의 이로움이 아니요, 각각 그 자기의 이로움인 것을 생각하십시오.²⁶⁾

안국선의 연설교육의 면모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위에 제시된 ‘청년구락부에서 하는 연설’을 살펴보자. 우선 “청년 여러분”, “아! 여러분이여”와 같이 2인칭 복수 대명사를 활용하여 청중들을 향해 호소력을 환기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러분’이나 ‘제군(諸君)’은 청중을 끌어들이는 호소력을 지닌 어휘로서, 이는 연설이 정착되기 전에는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²⁷⁾ 또한 “아니오”, “옳소”, “동감 동감”, “웃음소리가 일어나다”, “박수 대갈채” 등 청중의 반응을 삽입하여 청중들과 소통하는 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구어체로 청중의 반응을 살펴가며 천천히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26) 위의 책, 139쪽.

27) 柳澤浩哉 외, 앞의 책, 134쪽.

뿐만 아니라 청중들과의 정서적 공감을 높이기 위해 연설 도중 중요한 대목에서 ‘말의 높낮이와 억양에 힘을 주어’ 말하라고 제시하거나, ‘몸을 우뚝 솟게 하여 손을 흔들거나 얼굴색을 변하여’ ‘마음의 상태를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연설에 필요한 목소리의 상태, 표정, 제스처 등의 요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안국선이 연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연설문의 사례를 통하여 웅변술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를 지닌 레토릭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게이오의숙에서 연설교육을 받았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그러나 안국선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청년구락부에서 하는 연설’에서 간사하게 피를 부리는 원숭이가 우직한 개에게 당하는 우화를 활용하여, 지식수준이 천차만별인 일반 독자 대중들에게 학문에 임하는 자세를 쉽고 재미있게 이미지로 전달하는 교훈적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연설법방」이 출간된 이듬해(1908)에 여러 동물들이 인간을 성토했다는 연설 형식으로 구성된 우화소설 「금수회의록」을 발표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보면, 안국선은 우화형식이 지닌 계몽 효과와 설득 효과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조선 시대부터 동물의 이야기를 빌어 인간의 도덕과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토끼전」이나 「서동지전」 등 우화소설이 매우 활성화되었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29) 그러나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28) 메이지 10년대 게이오의숙 출신의 회고담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은 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을 직접 듣고 연설하는 법을 배웠으며, 또 웅변술과 제스처 등에 대해서는 원서를 직접 읽어서 연마했고 학생 스스로 직접 연설문을 작성하여 그것을 외우는 식으로 말하는 기예와 서양의 레토릭을 병행하는 연설교육을 받았다’고 했다.(柳澤浩哉 외, 앞의 책, 145쪽.) 이런 점에서 「연설법방」은 그가 순수하게 지은 이론서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출간된 이론서를 우리 실정에 맞게 편역한 정도로 보아야 한다.

29)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충분히 많은 논의가 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은 연설형식과 우화형식의 조화를 통하여 독자들을 계몽하고 설득하는 서사전략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우화소설과 차별화된다.

「연설법방」과 「금수회의록」은 각각 연설교육서와 소설이라는 점에서 담화 장르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연설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국민교과서’³⁰⁾로 활용되었던 점에서 상통점을 지닌다. 3장에서는 「금수회의록」의 서사 전략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독자 대중들을 쉽고 재미있게 계몽하고 설득하기 위해 활용하였던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효험성과 감화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금수회의록」에 나타난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당대에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활동하였던 안국선이 「연설법방」(1907)을 출간한 데 만족하지 않고 연설의 형식을 소설로 전환한 「금수회의록」(1908)을 발표했던 이유는, 당대 사회적 상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다.

원래 어느 정치연설이든지 그 발기한 자가 연설의 문제와 대의를 일일이 먼저 고하여 치안의 방해가 될 듯하면 인가하지 아니하고, 또 연설장에 경찰관이 출장하여 언론의 과격함이 있으면 중지시키고 방청하는 사람을 해산케 하니, 대체 광무년간에 외국유학한 생도 중 정

한다.

30) 이 용어는 1910년 이전의 개화기 소설이 신문기사와 토론, 연설 등과 같이 국민의 풍습과 관습을 개량하기 위한 계몽의 수단으로 교과서와 같이 활용되었던 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조의 「자유종」에서 유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정옥의 「계몽과 설득의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토론과 토론소설」, 『한국문학논총』 44집, 219-244쪽을 참조할 것.

치를 개량하고 국세(國勢)를 유지코자 하여 세력이 너무 강대하면 언론이 또한 과격하여 일세를 경동(驚動)하고 정부를 공격하거늘, 이리므로 정부에서 울문을 제정하여 단속을 엄중히 하는 고로 각처 연설회와 각 학교 토론회까지 모두 금지하니³¹⁾

구연학의 신소설 「설중매」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국선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였던 1907년부터 1908년의 시기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제 통감부가 설립되고 침략정책이 전면화되었다. 특히 경무신문지법(1907)이 발효되면서 언론 제약과 연설 금지 등 정치적 탄압이 노골화되었다. 이에 따라 개화기의 지식인들은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활동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풍속 개량이나 사회 개혁에 관한 계몽이념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치안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과 연설회 등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화기 지식인들은 독자와 청중을 자극하는 신문이나 연설회 등의 직접적인 활동보다 소설을 통해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계몽 이념을 전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³²⁾

사회의 크게 붓쫓게 하는 거슨 종교나 정치나 법률갓흔 큰 학문으로 바르게 하는 거시 아니라 언문소설로 바르게 하는 바1라.....일테 우부우부(愚夫愚婦)와 아동주졸(兒童走卒)의 하등사회로 시하야 인심을 변화하는 능력을 구(具)한 소설이니 그런즉 소설을 엇지 쉽게 불거시리오. 라약하고 음탕한 소설이 만흐면 그 국민도 이로써 감화를 받을 거시오 호협하고 강개한 소설이 만흐면 그 국민이 또한 이로써 감화를 받을지니 서양 선배의 닐은바 소설은 국민의 혼이라 함이

31) 구연학, 『설중매』, 『한국 신소설 전집』 제6권, 을유문화사, 1968. 16쪽.

32)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76-81쪽.

이 글에 따르면 소설은 지식 수준이나 학력의 고하, 나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볼 뿐만 아니라 ‘인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한다. 흔히 계몽적 지식인들이 소설의 기능과 소설 읽기의 사회적 효과를 민족적 요청이나 이념적 계몽과 관련시켜 사고하듯이, 개화기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소설은 일반 독자들의 풍속을 친근한 언어로 담아냄으로써 사회와 인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것이자, ‘국민의 혼’을 깨우고 각성하게 만드는 계몽의 도구였다. 이런 입각하여 개화기의 계몽적 지식인들은 정치나 법률이나 종교와 같이 어렵고 추상적인 방식으로는 호소력과 설득력을 담보할 수 없는 계몽 이념을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려 했다.

「금수회의록」 역시 일반 독자들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였던 개화기 소설의 경륜(經倫)적 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³⁴⁾ 즉 연설의 형식을 빌려 인간들의 풍속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아울러 우화형식으로 인간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강도 높게 고발함으로써 당대의 사회 풍속 개량해야 할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안국선 역시 일반 독자들에게 이념적 긴장을 주입하기 위해 소설을 계몽 기획의 도구로 활용하였던 개화기 지식인들의 행보와 궤를 같이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그러나 특기할만한 점은 우화소설과 액자소설의 조화를 통하여 계몽 이념의 전달력을 높이는 독특한 서사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

33) 신채호, 「近今 國文小說 著者の 主義」, 『대한매일신보』, 1908.7.8.

34)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103쪽.

35) 「공진회」에서는 ‘피곤 근심이 간 데 없고 재미가 진진하기를 바란다’는 서문과 같이 안국선의 소설관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이 논문과 다른 맥락에서 언급할 내용이기에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수회의록」은 동물들이 인간을 성토했다는 내화(內話)와 연설회를 관찰하는 인간의 입장을 담은 외화(外話)로 구성되어 있다. 외화가 내화를 감싸고 있는 구조는 액자소설의 형식에, 동물들이 인간을 성토했다는 내화는 우화소설의 형식에 해당한다. 이처럼 액자소설과 우화소설의 형식을 적절하게 결합함으로써, 동물들의 연설회에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참가한 ‘나’가 마치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 인간을 성토했다는 동물들의 연설 내용을 전달하고 논평을 가하는 식의 독특한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동물들의 연설회장을 그대로 재현한 것처럼 보는 서사전략은, 동물들이 인간들의 비도덕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풍자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욱이 인간 행동의 지침을 담은 한자어와 관련된 금수를 등장시켜 그들의 행동과 인간 행동의 비교를 통해 인간을 훈계하는 방식은, 어렵고 추상적인 정치나 법률, 종교 등에 관한 계몽 이념을 학식이 적은 일반 독자 대중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리하여 소설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치 연설회장에 동참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고, 그로인해 경성과 풍속 개량의 필요성에 대한 각성의 효험성을 높일 수 있다.

가) 지금 세상은 인문이 결판나서 도덕도 없어지고, 의리도 없어지고, 염치도 없어지고, 절개도 없어지고, 사람마다 어렵고 흐린 풍랑에 빠지고 헤어나올 줄 몰라서 온 세상이 다 악한 고로 -중략- 또 사람이 만일 쾌악한 일이 있으면 천히 여겨 금수 같은 행위라 하며, 사람이 만일 어리석고 하는 일이 없으면 초목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물건이라고 욕하니, - 중략 -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금수·초목이 도리어 사람의 무도패덕함을 공격하려 하니 괴상하고 부끄럽고 절통 분하여 열었던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섰더니³⁶⁾

나) “나는 파리올시다. 사람들이 우리 파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파리는 간사한 소인이라 하니, 대저 사람이라 하는 것들은 저의 흉은 살피지 못하고 다만 남의 말은 잘하는 것들이오. - 중략 - 사람들이 사람들아, 우리 수십억만 마리가 일제히 손을 비비고 비나니,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너희를 해치는 여러 마귀를 쫓으라. 손으로만 빌어서 아니 들으면 발로라도 빌겠다.” 의기양양하여 사람을 저희 똥만치도 못하게 나무라고 겸하여 충고의 말로 권고하고 내려간다.³⁷⁾

다) 여러 짐승들이 연설할 때마다 나는 사람을 위하여 변명 연설을 하리라 하고 몇 번 생각하여 본즉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하나 현하지변(懸河之辨)을 가지고도 쓸데가 없도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³⁸⁾

가)와 다)는 외화의 일부분이다. 가)는 내화가 시작되기 전, 관찰자인 ‘나’가 당대의 어지러운 풍속에 대해 비판적으로 연설을 하는 대목이다. 화자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여 “금수회의소”에 다다른 꿈을 꾸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지 않아 도리어 금수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에 부끄럽고 원통한 심경을 토로하여 화자와 독자의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다. 다)에서의 ‘나’는 여덟 금수들의 연설을 듣고 난 후 ‘인간이 금수보다 못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탄식하고 있다.

여기서 ‘꿈’은 외화와 내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서사적 장치에

36) 안국선, 「금수회의록」, 『한국 신소설 전집』 제8권, 을유문화사, 1968. 13-14쪽.

37) 위의 책, 36-38쪽.

38) 위의 책, 32쪽.

해당한다. 꿈은 동물들이 연설회를 개최한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에 개연성을 부여해준다. 이는 ‘평소 절실하게 생각하던 바가 꿈속에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정하였던 개화기의 몽유록계 소설과 동일한 방식으로서, 현실적인 세계와 비현실적인 세계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하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개연성을 부여해준다.

나는 내화의 일부분으로, ‘나’는 동물들이 차례로 나와 연설하는 모습을 독자에게 생중계하듯 소개하는 전달자 역할을 담당한다. 연설 내용에 대한 논평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태도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사람을 저희 똥만치도 못하게 나무라며 충고’한다는 표현에서 동물들에게 무시당하는 인간의 불편한 심기를 담아내고 있다.

이와 같이 유일한 목격자인 ‘나’는 독자에게 연설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전달자이자, 동물들의 연설회에 대해 논평을 가하는 논평자이다. ‘나’라는 화자를 통해 인간이 연설회를 관찰하는 외화와 동물들의 연설회장인 내화가 연결되는 서사전략을 통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관점을 동일시하여 인간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도덕성 회복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갖게 한다.

여기서 ‘나’는 소설 속의 화자이면서 동시에 당대 인류 사회의 풍속이 ‘풍랑’에 빠져있음을 한탄하는 작가 안국선을 대변하는 인물에 해당한다. 즉 ‘나’는 「연설법방」에 실린 「단연연설」이나 「학교의 학도를 권면하는 연설」, 또는 「풍속개량」이나 「미신론」 등에서 당시의 풍속을 개량하고 도덕심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을 권면하는 작가의 목소리와 일치한다.

그런데 「금수회의록」에서 유일한 목격자인 ‘나’가 말하는 것과 「연설법방」에서의 안국선이 직접 목소리를 드러내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설득력이 높은 것은 자명하다. 전자의 ‘나’의 경

우 동물에게조차 멸시당하고 비판받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점에 대한 독자들의 동일시를 유도해냄으로써, 적어도 인간으로서 동물들에게 비난 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할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 전략은 대중들을 향해 사회 개혁과 풍속 개량을 목적으로 개화기 지식인들이 연설하는 것에 비해 독자 대중들을 향한 설득과 계몽의 효험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설득과 계몽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당시 활성화되었던 개화기의 연설회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묘사에 집중되어 있다.

나도 따라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보니, 각색 길짐승, 날짐승, 모든 버러지, 물고기 등물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그 안에 뻑뻑하게 서고 앉았는데, 모인 물건은形形色색이나 좌석은 제제창창한데, 장차 개회하려는지 규칙방망이 소리가 똑똑 나더니, 회장인 듯한 한 물건이 -중략- 회장석에 올라서서 한번 읊하고, 위위가 엄숙하고 형용이 단정하게 딱 서서 여러 회원을 대하여 하는 말이, -중략- 이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은 세 가지 문제가 있소. 제일, 사람된 자의 책임을 의론하여 분명이 할 일, 제이,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의론할 일, 제삼, 지금 세상사람 중에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할 일. -중략- 이 세 가지 문제를 토론하여 -중략- 여러분은 이 뜻을 본받아 이 회의에서 결의한 일을 진행하시기 바라옵나이다. 회장이 개회 취지를 연설하고 회장석에 앉으니³⁹⁾

연설회장에 청중들이 뻑뻑하게 가득 차고, 장내에는 엄숙하고 긴장감이 돌며, 연설회의 시작 부분에 회장이 등장하여 개회 취지와 논제를 밝히는 광경 등은 개화기 연설회의 분위기와 아주 흡사하다. 협성회의

39) 위의 책, 14-15쪽.

경우 토론회 참가자가 통상적으로 206 여명에 달하였고,⁴⁰⁾ 「설중매」에 서도 ‘백 여간 대청에 방청하는 사람이 가득하여 송곳 꽃을 틈이 없’을⁴¹⁾ 정도로 청중이 들어섰다고 하였으니, 각종 짐승들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뻑뻑하게 서고 앉은’ 연설회장의 묘사 역시 꺾진성의 효과를 지닌다. 또 연설회장을 가리키는 ‘금수회의소’라는 현판 옆에 ‘인류를 논박하는 일’이란 논제를 내건 모습이나,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물건이든지 의견이 있거든 의견을 말하고 방청을 하려거든 방청하되 다 각기 자유로 하라”는 광고 역시 당일 회원들 중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연설을 할 기회를 주었던 개화기의 연설회의 상황⁴²⁾과 매우 흡사하다.

더욱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어체를 활용하거나 “예, 여러분”과 같이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연사와 청중 사이의 동질감을 높이는 연설체의 화법을 사용하여 개화기의 연설회장을 재현한 듯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래 우리 짐승 중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독한 것들이 있단 말이오”처럼 수사 의문문으로 물어 본 후 “손뼉소리 천지진동”, “손뼉 소리 귀가 막막” 등과 같이 청중의 반응을 유도하는 수사법과 제스처 등을 활용하고 있어서 연설회장의 현장감과 꺾진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모두 독자들이 계몽 이념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소설 속에 개화기 연설회를 그대로 재현하여 일반 독자 대중들로 하여금 마치 연설회장에 직접 참여한 것과 같은 상상력과 현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국선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계몽과 교화의 이념은 여덟 금수들의 연설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

40) 『협성회회보』, 1898. 2. 12.

41) 구연학, 앞의 책, 17쪽.

42) 전영우, 앞의 책, 127-130쪽.

하는 기준은 ‘개회 취지’에서 회장이란 동물의 입을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사람된 자의 책임, 사람 행위로서의 옳고 그름, 인류로서의 자격 여부’에 두고 있다. 연사로 등장한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등의 금수들은 각자의 특성과 관습에 맞추어서 인간의 행동을 하나하나 비판한다.

동물들의 연설 내용은 전형적인 연설의 구조에 충실하고 있다. 각 연설의 내용은 인사말과 동기나 목적을 제시하는 서론,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 전개 부분인 본론, 청중의 반응을 정리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결론이라는 공식⁴³⁾에 따라, 연사로 등장한 각 동물의 자기소개 및 자신의 특성에 대해 진술하는 서론, 동물들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을 비교함으로써 동물을 경멸하는 인간의 태도 고발하는 본론, 청중들에게 인간의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촉구하는 결론이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다.

처음으로 등장한 까마귀의 예를 들면, 까마귀 자신을 소개한 다음 까마귀의 특성에 맞게 반포지효(反哺之孝)의 뜻풀이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은 효를 잘 실천하고 있는 점을 진술하고, 인간들의 불효를 비판한다. 불효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까마귀를 경멸하는 인간의 후안무치를 성토했다. 인간이 인간다운 책임과 행동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주장한다. 까마귀 다음에 등장하는 나머지 동물들도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여우, 정와어해(井蛙於海)의 개구리, 구밀복검(口蜜腹劍)의 벌, 무장공자(無腸公子)의 개, 영영지극(營營之極)의 파리, 가정이 맹어호(苛政而猛於虎)와 관련된 호랑이, 쌍거쌍래(雙去雙來)와 관련된 원앙 등 각자의 이미지에 투사된 한자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공식에 맞추어 연설을 실행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43) 최선경, 「연설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어전공 석사논문, 1999. 21쪽.

은 비판의 대상이 단지 인간의 보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당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또 나라로 말할지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어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한당이 칼이나 육포를 갖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부녀를 겁탈하는 것이나 다름 바가 무엇 있소?⁴⁴⁾

조그만치 남보다 먼저 알았다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남의 나라 빼앗기와 남의 백성 학대하기와 군함·대포를 만들어서 악한 일에 종사하니,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당초에 사람되는 영혼을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소.⁴⁵⁾

나) 제가 외국 사람인 체하여 제 나라 동포를 압제하며, 혹은 외국 사람 상종함을 영광으로 알고 아첨하며, 제 나라 일을 변변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며, 여간 월급냥이나 벼슬날이나 얻어 하노라고 남의 나라 정탐군이 되어 애매한 사람 모함하기, 어리석은 사람 위협하기로 능사를 삼으니 이런 사람들은 안다는 것이 도리어 큰 변통이 아니오?⁴⁶⁾

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하여도 모르는 체하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오? 그 정부에 옳은 마음 먹고 벼슬하는 사람 누가 있소? 만관 경륜이 임군 속일 생각, 백

44) 「금수회의록」, 19쪽.

45) 「금수회의록」, 21-22쪽.

46) 「금수회의록」, 22쪽.

가는 평소 남의 힘을 빌려 잘난 척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여우와 식견이 좁기로 이름난 개구리가 등장하여 각각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비도덕성을 고발하는 대목이다. 이 두 짐승들은 선진 지식과 무력의 위력을 빌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의 횡포를 비판하고, 선진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를 압박하는 일본인들이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나의 경우는 개구리의 목소리로 일본의 앞잡이 노릇에 충실하여 동족을 모함하고 위협하거나 일본에 아첨하는 등의 그릇된 행동을 준열하게 꾸짖고 있다. 또 다는 창자가 없는 개의 목소리로 남의 나라의 억압과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항거할 줄 모르고 자유를 찾고자 투쟁할 줄도 모르는 무능하고 비굴한 정부와 관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설법방」에 실린 라)의 ‘낙심을 계하는 연설’과 마)의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는 연설’의 일부를 살펴보면, 내용면에서 보면 무능하고 비굴한 정부와 관리를 비판하고 나아가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에서 「금수회의록」의 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 ‘국민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면, 그 나라를 없애버리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이올시다. - 중략 - 오늘날 우리 한국이 정말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떨어졌지마는, 뒷날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에 이를 터이니 여러분은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 중략 - 종로의 지난날 몹시 슬펐던 큰 변(變)은 그 까닭이 정말로 한숨설만한 일이지마는, 날래고 사나우며 튼튼하고 큰 우리 동포

47) 「금수회의록」, 25-26쪽.

가 다른 나라 불꽃놀이만도 못한 그 총소리에 낙심하셨습니까?⁴⁸⁾

마)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동포 여러분이여! 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믿고 맡길 수 없는 정부를 공경하여 떠받든 까닭으로 오늘날에
이와 같이 슬프고 슬픈 처지를 만났으니, 여러분은 지금 정부 정
책의 옳고 그름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략- 여러분이 만약
독립을 바라며, 행복을 바라며, 문명을 바라신다면, 어찌 이와 같
이 무능력한 정부의 정책을 말없이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⁴⁹⁾

그러나 동일한 계몽 이념을 전달하더라도 개화기 지식인들의 입을 통
해 일반 독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연설법방」과 우화소설과 액자소설
의 서사전략을 통해 인간을 성토하는 풍자의 방식은 독자 대중을 향한
설득과 계몽의 효과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작가와 독자를 고려
한 소설 외적 층위에서 보면, 동물들이 펼치는 연설을 읽는 독자들은
실제 연설회에 참여한 것과 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경
험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인간보다 못한 동물들이 오히려 인간을 성토
하고 비난하는 연설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전달하는 ‘나’의 논평은, 독자들의 공감을 자극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효
과를 지닌다. 「연설법방」과 비슷한 수위의 비판적인 내용을 담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수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일본의 정책과 한국
대신의 행동을 비난·공격하였다’는 총독부의 기록⁵⁰⁾이나 1909년 5월 ‘치
안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압수되었던 점⁵¹⁾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고발

48) 「연설법방」, 140-144쪽.

49) 「연설법방」, 151쪽.

5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1권, 국사편찬위원회, 1965. 339쪽.

51) 「고시」, 『구한국관보』, 1909. 5. 7, 최기영,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 상, 『한
국학보』, 63집, 1991, 136쪽에서 재인용.

성이나 비판적 교훈성의 효과가 훨씬 높았음을 증명해준다.⁵²⁾

이런 점에서 보면 「금수회의록」은 시공간적 제한이 많은 실재적인 연설과 달리, 더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계몽교육을 펼칠 수 있는 ‘교과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남녀노소 모든 독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소설의 계몽과 설득의 효험성은, 실재 연설이 갖는 계몽의 효험성보다 더욱 크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기에 국민의 사적 영역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수회의록」이 갖는 설득과 교화의 효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즉 「금수회의록」을 비롯한 토론체 소설은 독자 개인의 내면에까지 도달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의사소통적 매체에 해당한다. 소설의 효용성을 중요시했던 개화기의 공리주의적 문학관에 비추어 보면, 토론체 소설은 계몽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의 의도와 계몽의 대상이 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집합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매체가 된다.⁵³⁾

그런데 「금수회의록」에서 인간 성토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영혼과 도덕심을 불어넣었으나 인간들이 이를 배반하여 악증이 많아지게’ 되어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명예를 박탈하고 이를 마귀라 칭하기를 하나님께 상주할 것인지 결정하는’⁵⁴⁾ 것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2) 「연설법방」 역시 1912년 2월에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출판법에 따라 1912년 2월 발매 중지가 되었다.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부 발매분포금지도서』, 1915.12) 그러나 이때는 대부분의 서적이 발매중지가 되었기에 「금수회의록」이 압수된 맥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53) 이정옥, 앞의 글, 232-233쪽.

54) 「금수회의록」, 13쪽.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려고. -중략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등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 씨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을 사랑한시다 하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 얻는 길도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는 깊이깊이 생각하시오.⁵⁵⁾

이는 연설회의 목격자이자 전달자인 ‘인간으로 태어나 짐승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통해하지만, 한편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여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희망적 태도는 수치스러움과 탄식에 빠졌던 독자들로 하여금 ‘나’의 호소에 따라 인간다움의 회복을 각성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수용하도록 만든다. 이처럼 「금수회의록」은 당대 사회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회개나 구원 차원으로 환원함으로써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안이한 결론에 도달해버린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태도는 안국선이 인간을 성토하고 회개를 권유하는 출발점을 기독교적 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는 데서 기인된 것이다. 이는 투옥 당시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종교 활동에 심취했던 안국선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⁵⁶⁾

이십세기의 조선은 교화(教化)의 조선이요. 실업(實業) 조선이요.
이것이 조선에 대한 이십세기의 대세니 이십세기의 대한제국 인사는

55) 「금수회의록」, 45-46쪽.

56) 권영민, 『한국 민족 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77-78쪽.

이 대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요. -중략- 백성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화하는 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말하자면 ‘종교’요, 둘째는 말하자면 ‘교육’이다. 이 두 종류가 실제로 사회문명의 근본이니 -중략- 이십세기의 교화조선을 조성하려면 종교와 교육의 두 가지가 서로 기다려 이루어야 할 것이니 교당과 학교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해 마주서야 할 것이요.⁵⁷⁾

당시 언론가로 활동하였던 김대회의 대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국선은 당대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교화와 실업으로 꼽았고,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으로 종교와 계몽교육을 접목시키려 했다. 그러나 종교와 교육을 동등하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민족적 위기와 현실적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기독교 문화를 근대적 문명개화와 동일시함으로써 기독교적 실천이 곧 문명국가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보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일본이 물질적 문명은 이룩했지만 종교적 문명을 이룩하지 못했기에 도덕적으로 ‘야(野)’를 면치 못했다’⁵⁸⁾는 주장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 역시 개화기 지식인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사상적 한계를 드러냈다.

4. 결론

개화기 소설에 대한 문학연구는 오랫동안 소설의 미학적 속성이나 양

57) 김대회, 「안국선씨 대한금일선후책」, 『20세기 조선론』, 1907. 9, 안국선 편, 앞의 책, 358-361쪽에서 인용.

58) 위의 책, 360쪽.

식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개화기의 사회문화적 조건의 변화과정과 개화기 소설의 발생과정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화기 소설의 특질을 밝히려는 노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새로운 연구 경향을 받아들여, 개화기 소설이란 공공영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의사소통적 양상이 문학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소설이 갖는 감화력과 전달력을 이용하여 계몽 이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점에 의거하여 개화기 소설을 계몽 효과가 높은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개화기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연설교육에 주목했고, 이런 맥락에서 안국선의 연설교육서인 「연설법방」과 연설을 소설화한 「금수회의록」을 중심으로 계몽 이념의 전달력과 독자들의 감화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연설법방」에는 이상적인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론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여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설교육이 필요하다는 안국선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연설에 임하는 자세나 연설하는 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후반부에서는 당대의 계몽 이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문을 예시하였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안국선은 연설을 단순히 계몽 담론을 전파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설교육을 통해 근대적 문물과 계몽 담론을 익힘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풍속을 개량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변혁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년구락부에서 하는 연설’에서는 학문과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잔피를 부리는 원숭이가 우직한 게에게 당하는 우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우화를 활용한 연설교육의 효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수회의록」은 우화소설과 액자소설의 형식을 결합하여 동물이 인간을 성토했다는 연설회로 구성되어 있다. 개화기 지식인들이 청중들을 향하여 당대 사회 구성원들의 풍속을 비판하고 개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직설적인 연설보다 금수들이 인간을 성토했다는 연설회를 가상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계몽 이념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마치 개화기에 있을 법한 어느 연설회장에 청중의 일원으로 참가한 인간의 눈과 귀를 통해 동물들이 인간을 성토했고 고발하는 현장을 직접 생중계하듯 보여주는 독특한 서사방식은 독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수치감과 인간다운 행동에 대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각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서사적 효과는 「연설법방」에 실린 연설 사례문과 비판의 내용이 상호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수회의록」이 비판의 수위 면에서 훨씬 더 높게 느껴지게 만든다. 동물들이 인간을 비판하고 회개를 유도하는 토대를 기독교적 사상에 두고 있는 점에서 개화기 지식인의 기독교적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즉자적으로 근대적 문명개화와 동일하게 등치하는 한계를 보였다.

개화기 지식인과 당대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개화기 소설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온전하게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개화기의 공공영역에서 수행되었던 의사소통 방식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밝혀냄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연설이나 토론을 매개로 개화기 지식인들의 지적 지형도 전체를 재구성해내는 작업과 맞물려 있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문』, 『협성회회보』,
안국선 편, 『금수회의록 (외)』, 범우, 2004.
『한국 신소설 전집』, 을유문화사, 1968.

2. 논문 및 단행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1권, 국사편찬위원회, 1965.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권영민, 『한국 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김교봉·설설경, 『근대 전환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5.
김도태, 『서재필 박사 자서전』, 을유문고, 1969.
김동면, 「협성회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0.
김동식, 『한국 근대문학의 풍경들』, 들린아침, 2005.
김원규, 「개화기 토론체의 담론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 양식 논고』, 아세아문화사, 1980.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4.
김중하, 『개화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2005.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송지현, 「안국선 소설에 나타난 이상주의의 변모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제 26집, 1988. 337-356쪽.
엄훈, 『조선 전기 논변 연구』, 역락, 2005.
여건중, 「공공영역의 수사학 :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소설의 발생」, 영미문학 연구회 편, 『안과 밖』2호, 1997. 8-40.
유길준, 『서유견문』, 허경진 역, 한양출판, 1995.
이강엽, 『토의문학의 전통과 우리 소설』, 태학사, 1997.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이정옥, 「계몽과 설득의 의사소통 방식으로서의 토론과 토론소설」, 『한국문학
논총』 제44집, 2006. 12. 219-243쪽.
- 이창덕 외, 『삶과 화법』, 박이정, 2004.
-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 전영우, 『한국 근대토론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91.
- 차배근, 『개화기 일본 유학생들의 언론출판활동연구(1)』,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 최기영, 「안국선의 생애와 계몽사상」 상, 『한국학보』 상하, 제63, 64집, 1991.
124-160쪽, 52-74쪽.
- 최선경, 「연설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외국어교육과 독
어전공 석사학위논문, 1999.
- 최성민, 「토론의 서사화와 근대의 형성」, 『한국 소설 연구』 제5집, 2003. 8. 58-84
쪽.
- 후쿠자와 유키치, 남상익·사사가와 고이치 공역, 『학문의 권장』, 소화, 2003.
- 柳澤浩哉 外, 『レトリック探究法』, 朝創書店, 2004.

Strategy for making narrative of speech and effect of enlightenment
and persuasion on reader

- Centering Ahan Kooksun's 「Method of speech」 and 「Recollections of birds
and beast」

Lee, Jung-Oak

This paper begins on the basis that Gaewhagi(The age of enlightenment)-fiction composed of dialogue format has converted speech aspects of public sphere into literature. From this viewpoint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speech education of Gaewhagi and inspects Ahan Kooksun's strategy which raised the force of delivery of enlightenment idea and influence on reader, centering 「Method of speech」 and 「Recollections of birds and beast」.

「Method of speech」 was reflected in enlightenment idea which need speech education to activate public opinion for constructing ideal modern state. As for having studied in Geiouisuk which was the center of Japanese speech education in those days, Ahan Kooksun had specially put the great emphasis on speech education, He asserted that learning modern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discourse through speech education could bring people to improve customs, which could also result in the possibility of accomplishing social reform.

「Recollections of birds and beast」 is composed of rahmennovelle and fable novel, speech encounter in which birds and beast criticize human beings. This narrative method awakes readers to shame introspection of conduct as human beings, in consequence it comes into effect on persuading and enlightening readers. For this reason, even if speeches in 「Method of speech」 are similar in 「Recollections of birds and beast」, the latter comes to feel the former compared to degree of criticism far more highly. It is based on Christian thought that animals criticize human beings and exhort them to repent. But it is the limit which Ahan Kooksun thinks that Christian culture is directly related with modern civilization. To investigate Gaewhagi-fiction into sociocultural meaning as communicative style, we have to research topography of Gaewhagi intellectuals through mediation with speech or debate. This is the purpose of future research.

Key Words

speech education, enlightening effect, communication, public sphere, making narrative of speech, rahmennovelle, fable novel

* 위 논문은 2007년 4월 30일에 투고되어, 2007년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